



# 빠르게 온 미래, AI Full Bank를 준비하라

AX 시대에 성공적인 AI Full Bank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축을 정의하고  
글로벌 선진 금융 사례를 분석합니다.

April 2026



# Table of contents

---

들어가며	<b>03</b>
AI 풀뱅크의 개념	<b>04</b>
AI 풀뱅크의 축① People Light	<b>06</b>
AI 풀뱅크의 축② AI Autonomous	<b>10</b>
AI 풀뱅크의 축③ All Connected Wealth	<b>12</b>
제4인터넷전문은행의 새로운 기준	<b>14</b>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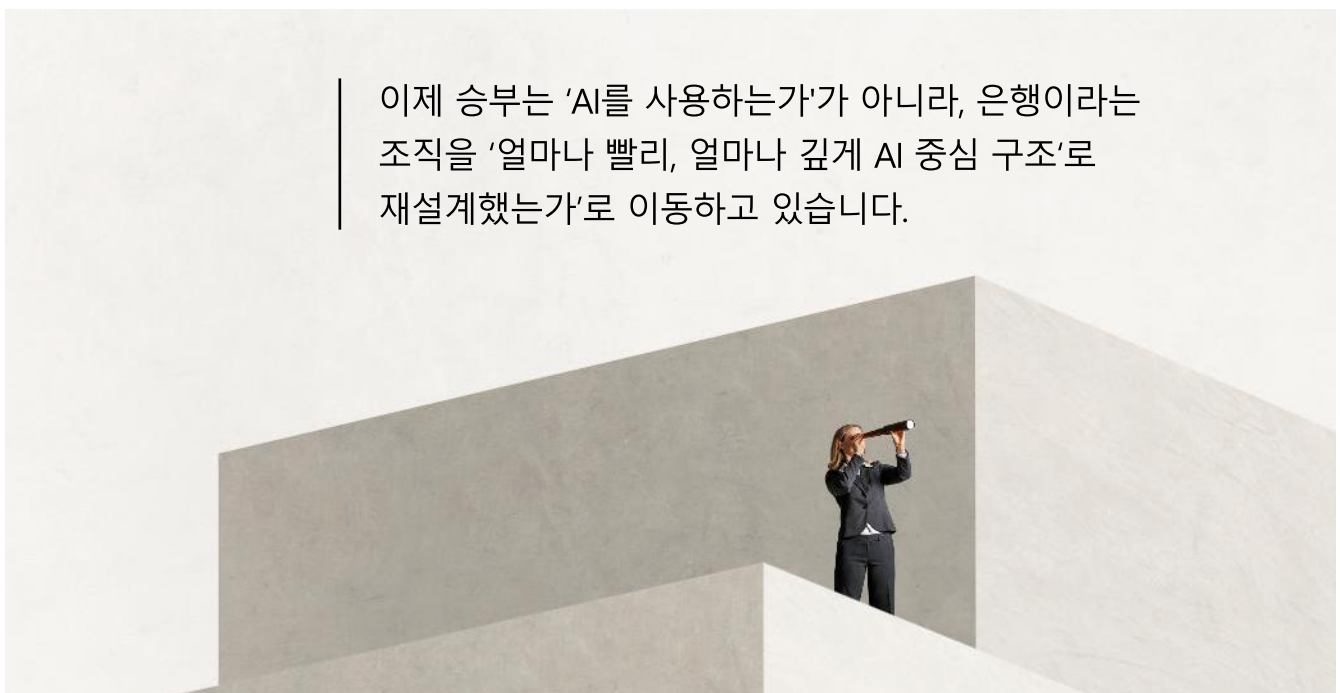
# 들어가며

불과 10여 년 전 '디지털 은행'이라는 말이 등장했을 때, 은행은 채널을 바꾸는 혁신을 경험했습니다. 지점은 줄고 모바일은 표준이 됐으며, 인터넷전문은행과 네오뱅크는 은행을 앱으로 다시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작된 AI 전환은 단순한 채널 혁신이 아닙니다. 은행의 운영 원리 자체를 바꾸는 변화입니다. 철학이 의사결정으로 전환되는 방식, 그 의사결정이 시스템 규칙으로 구체화되는 방식, 그리고 그 규칙이 고객의 자산 흐름을 움직이는 방식까지, 은행의 운영 메커니즘이 통째로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JP모건체이스의 CEO 제이미 다이먼은 AI를 인쇄술, 전기, 컴퓨터의 등장 만큼의 중요한 변화로 보고 있으며, JP모건체이스는 2025년 기준 운영 환경에서 500개가 넘는 AI 유스케이스가 돌아가고 있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승부는 'AI를 사용하는가'가 아니라, 은행이라는 조직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깊게 AI 중심 구조'로 재설계했는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이후의 다음 단계, 그것은 처음부터 AI 중심으로 설계된 은행입니다. 이를 여기서는 'AI 풀뱅크(Full Bank)'라고 부르려 합니다. 본 보고서는 글로벌 은행의 사례를 분석하고 AI 풀뱅크 전환의 세 가지 축을 제시합니다.

이제 승부는 'AI를 사용하는가'가 아니라, 은행이라는 조직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깊게 AI 중심 구조'로 재설계했는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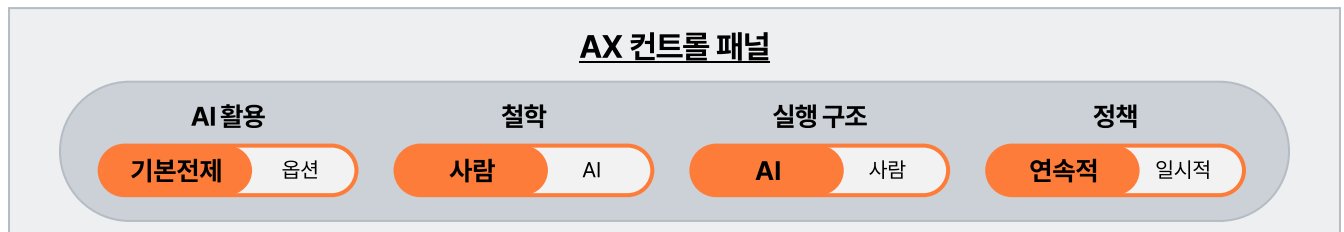
# AI 풀뱅크의 개념

## 빠르게 온 미래, 금융 AX

디지털 전환이 고객 접점의 변화였다면, AI 전환은 의사결정과 실행 구조의 근본적 변화입니다. 디지털 전환은 오프라인 지점에서 모바일 banking으로 패러다임이 이동하는 채널 중심의 변화를 이끌었고, 이후 AI의 초기 도입으로 챗봇, 콜봇 등 일부 채널 영역에 AI가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예 AI에 기반하여 운영 구조가 재편되고, 목표에 따른 의사결정과 실행을 AI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AX(AI Transformation)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AI를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운영 전반에 스며들게 할 것인가'입니다. 개별 업무 단위로만 AI를 활용한다면 성과는 있지만 구조적 변화는 제한적입니다. 반면 의사결정과 실행 구조 자체를 AI의 언어로 재설계한다면, AI는 업무 간 흐름을 끊김 없이 연결하고 성과는 시간이 갈수록 누적됩니다. 이것이 AI 풀뱅크의 출발점입니다. 정의된 목표에 따라 의사결정 로직을 실행하고, 실제 자산 이동과 집행의 주체가 되며, 규제·리스크 대응까지 AI를 전제로 '은행이 어떻게 움직이도록 설계할 것인지'를 정의하는 운영 모델입니다.

### AI 풀뱅크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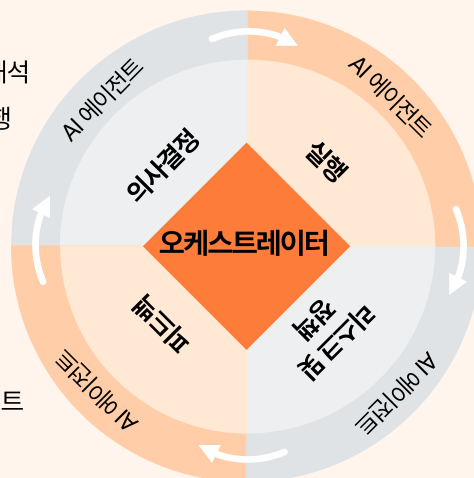


### AI 풀뱅크 운영 모델

AI 풀뱅크는  
은행이 AI를 전제로  
'어떻게 움직이도록 설계할  
것인지'를 정의하는 모델

- ✓ 기준, 정책, 목표 해석
- ✓ 의사결정 로직 실행

- ✓ 결과 모니터링
- ✓ 기준·정책 업데이트



- ✓ 계좌 이동, 집행, 처리
- ✓ 실제 실행의 주체

- ✓ 규제·리스크 검증
- ✓ 사람의 설계 기준 적용

# AI 풀뱅크의 세 가지 축

AI 풀뱅크의 구조 전환은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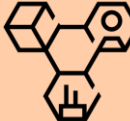

첫째, People Light는 조직의 방향을 비추는 사람의 역할이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AI가 실행을 맡을수록 사람은 철학을 세우고, 의사결정 구조를 정의하고, 책임의 최종 주체가 됩니다.

둘째, AI Autonomous는 자동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표 기반 실행입니다. 목표와 판단, 실행을 끊임 없이 연결하며, AI 에이전트들이 역할을 나눠 자율적으로 협업합니다.

셋째, All Connected Wealth는 계좌, 상품, 투자, 부채를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하고 AI가 판단할 수 있는 자산 가시성을 확보하여 신뢰, 커스터디, 규제를 결합합니다.

이 세 축은 서로 분리된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은 방향을 설계하고, AI는 실행하며, 연결된 자산은 그 위에서 이동하고 증식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완결되는 지점에서, 은행은 예금과 대출을 처리하는 기관을 넘어 고객의 삶의 목표를 실현하는 신뢰의 플랫폼으로 전환됩니다.

## AI 풀뱅크의 세 가지 축

 <p><b>People Light</b> 조직의 방향을 비추는 사람의 역할</p>	 <p><b>AI Autonomous</b> 끊임 없이 움직이는 AI</p>	 <p><b>All Connected Wealth</b> 연결을 넘어 증식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학, 기준, 정책을 사람이 설계</li> <li>• AI가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구조 정의</li> <li>• 사람은 예외, 통제, 책임의 최종 주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 판단 → 실행을 끊임 없이 연결</li> <li>• AI 에이전트들이 역할을 나눠 자율적으로 협업</li> <li>• 실행 결과가 즉시 다음 판단에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좌, 상품, 투자, 부채를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li> <li>• AI 판단을 위한 자산 가시성 확보</li> <li>• 신뢰, 커스터디, 규제 결합</li> </ul>

**글로벌 금융 AX 성공 사례는 개별 기술과 기능이 아닌 상기 세 가지 축의 변화로 설명됨**

출처: PwC

# AI 풀뱅크의 축① People Light

## 더 중요해지는 사람

People Light를 흔히 사람을 줄이자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정반대입니다. AI가 실행을 맡을수록, 남는 사람의 영향력은 오히려 더 커집니다. 경쟁의 초점이 '누가 더 많이 처리하느냐'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처리하느냐'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People Light는 가벼운 조직이면서 동시에 빛입니다. 조직은 경량화되지만, 남는 사람은 철학을 세우고 그 기반 위에서 의사결정 기준과 고객의 경험을 설계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 관점에서 싱가포르의 트러스트 뱅크(Trust Bank)와 미국의 소파이(SoFi)는 매우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두 은행은 서로 다른 시장에서 출발했지만, 공통적으로 분명한 철학을 가진 소수의 핵심 인력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은행을 만들고, 이제는 AI를 전면적으로 장착해 그 철학을 더 정교하게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People Light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 AI 활용이 확대됨에 따른 사람의 역할 변화



출처: Pw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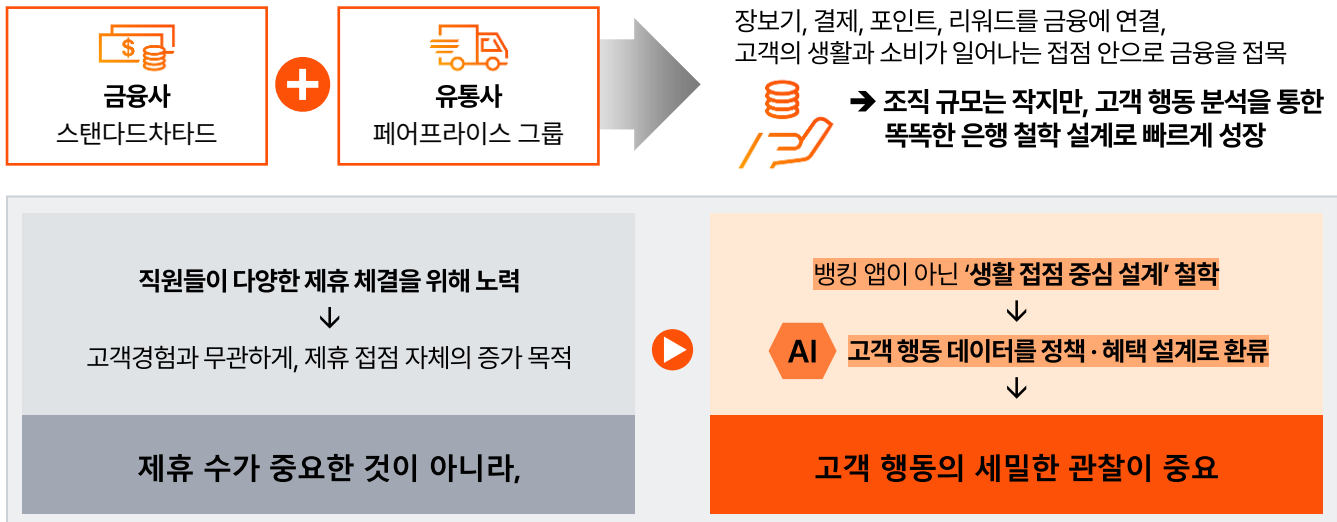
## 트러스트 은행: 생활과 금융의 접점을 설계한 은행

트러스트 은행의 철학은 은행을 별도의 금융 앱으로 존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생활과 소비가 일어나는 접점 안으로 생활의 리듬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트러스트 은행은 스탠다드차타드와 유통사 페어프라이스 그룹(FairPrice Group)의 합작으로 출범한 디지털 은행으로, 페어프라이스 생태계 안에서 장보기, 결제, 포인트, 리워드를 금융과 결합해 왔습니다. 트러스트 은행은 처음부터 페어프라이스 그룹 접점에서의 절감 혜택과 링크포인트(Linkpoints) 적립을 핵심 경험으로 제시했습니다. 즉 고객은 단지 계좌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소비의 흐름 속에서 금융 혜택을 체감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표면적인 제휴의 숫자가 아닙니다. 핵심은 고객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사고, 어떤 혜택에 반응하며,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지를 세밀하게 관찰하는 능력입니다.

페어프라이스와 연결된 포인트, 리워드 구조는 고객행동을 읽고 다시 혜택과 정책, 경험 설계로 되돌려 보내는 일종의 센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델은 AI가 더해질수록 더 강해집니다. 고객행동의 패턴을 더 빠르고 정밀하게 읽고, 그 결과를 다시 제안과 리워드, 상품 구조와 생활금융 경험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러스트 은행은 바로 그 점에서 People Light의 사례입니다. 적은 수의 사람들로 AI를 활용해 고객의 생활 리듬을 관찰하고 자신들의 철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구조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 트러스트 은행의 설계 구조



출처: PwC

## 소파이: 사람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 가능성을 본 금융

소파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소파이의 출발은 디지털 금융상품을 묶어 파는 데 있지 않았습니니다. 소파이는 2011년 스탠퍼드대학 경영대학원생들이 동문 자금을 바탕으로 최근 졸업생과 연결하는 모델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어 2012년에는 학자금 대출 리파이낸싱을 런칭하여 기존 금융이 획일적인 신용 기준으로 충분히 평가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잠재력과 미래 상환 역량을 다르게 보겠다는 근본적 문제의식을 현실화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상품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밑바탕에는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누구에게 금융 기회를 줄 것인가', '좋은 금융이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질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후 소파이는 대출, 저축, 투자, 보호를 하나의 앱 안에 묶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확장했지만, 그 출발점의 철학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파이 같은 디지털 금융사는 AI를 더 깊게 활용하면서, 적은 수의 핵심 인력이 고객의 경로와 가능성, 행동과 니즈를 더 정교하게 읽고 이를 심사와 추천, 서비스 경험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금융 기회를 설계하겠다는 철학을, AI를 통해 더 일관되고 정밀하게 실천하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 소파이의 금융 서비스 설계

기존 금융의 획일적 신용 기준에 대한 근본적 의문에서 출발

“ 동일한 현재 조건이라도, 미래 상환 역량은 상이하지 않은가? ”

스탠퍼드대학 학자금 대출에서 출발하여, 아이비리그 대학 중심 확장, 이후 투자자문 등 미래은행으로 서비스 확장

철학적 질문을 출발점으로 금융 서비스 설계

#### 철학적 출발점: 누구에게 금융 기회를 줄 것인가?

현재가 아닌, 미래 잠재력에 집중

학력 직무 커리어패스

사람의 현재 상태가 아니라, 미래 성장 가능성과 상환 역량에 주목



#### 진화 방향: 분석 역량 고도화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더욱 정교하게 분석

경로 행동 성장가능성

AI를 통해 고객의 경로, 가능성, 행동을 더 정교하게 읽는 구조로 진화

✓ 금융을 '사람의 성장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재정의

출처: PwC

## 골드만삭스: 적은 수의 사람이 하는 본질적인 역할

골드만삭스의 움직임은 People Light가 단순 효율화가 아니라 사람의 역할을 다시 정의하는 문제이며 실제 인재 전략과 조직 전략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골드만삭스는 한때 '우리는 기술 회사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기술 인력을 대규모 확충했고, 2025년 투자자 행사 자료에서도 약 4만 명의 엔지니어와 약 100개의 생성형 AI 솔루션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변화의 핵심은 엔지니어 수를 더 늘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작년 3월 골드만삭스는 아마존 AI·AGI 조직 출신의 다니엘 마르쿠(Daniel Marcu)를 글로벌 AI 엔지니어링 책임자로 영입했습니다. 이는 AI를 조직에 어떻게 스며들게 할 것인가, AI가 어떤 기준과 구조 아래 움직이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 변화는 채용과 역할 정의에서도 드러납니다. 골드만삭스의 공식 엔지니어링 소개는 UI/UX 디자이너, 풀스택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클라우드 엔지니어가 함께 협업하는 구조를 전면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은행에서 중요한 사람이 더 이상 실행 인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적은 수의 사람들이 훨씬 더 본질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People Light 시대에 사람의 역할은 네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철학자로서 무엇을 좋은 금융으로 볼 것인지, 누구를 돕고 어떤 위험은 감수하지 않을 것인지 기준을 세웁니다. 둘째, 의사결정 설계자로서 그 철학을 기반으로 심사, 가격, 한도, 혜택, 경고 등의 기준을 시스템 언어로 번역합니다. 셋째, 관찰자 겸 고객경험 디자이너로서 고객의 생활 리듬을 읽고 경험을 설계합니다. 넷째, 오케스트레이터로서 여러 AI 에이전트, 시스템, 데이터, 통제 장치가 충돌하지 않고 하나의 목표 아래 움직이도록 조율합니다. 다시 말해 AI 풀뱅크에서 사람은 철학을 세우고, 구조를 설계하고, AI를 조정하는 소수의 핵심 운영자가 됩니다.

### 골드만삭스의 인력 구조 설계



“ 골드만삭스는  
기술 회사(Technology Firm)다  
로이드 블랭크페인, 골드만삭스 전 CEO

엔지니어 위주의 공격적인 기술 인력 채용에서, '결정하는 리더십' 인력 채용으로 발전  
**'IT 회사 선언'의 시대에서, 'AI가 스며드는 은행'의 시대로**

25% 2025년 초 기준, 46,000여 명의 직원  
중 중 약 11,000명이 엔지니어

대규모 IT 인력 운영·실행 및 기술 조직 확대  
→ 다수의 IT 인력 채용을 통한 실행 구조 확립

'누가 코드를 짜는가'  
기술 인력이 많아도, 판단 기준이 분산되면 효과는 제한적



아마존 알렉사 AI 출신 다니엘 마르쿠를  
AI 엔지니어링 책임자로 영입

AI 플랫폼·제품·운영 전반을 관통하는 리더십 강조  
→ 소수 리더십 채용을 통한 결정 구조 확립

'누가 기준을 정하는가'  
사람이 결정 방향을 정하여, AI가 조직 전반에 스며들게 함

출처: Media Research, PwC

# AI 풀뱅크의 축② AI Autonomo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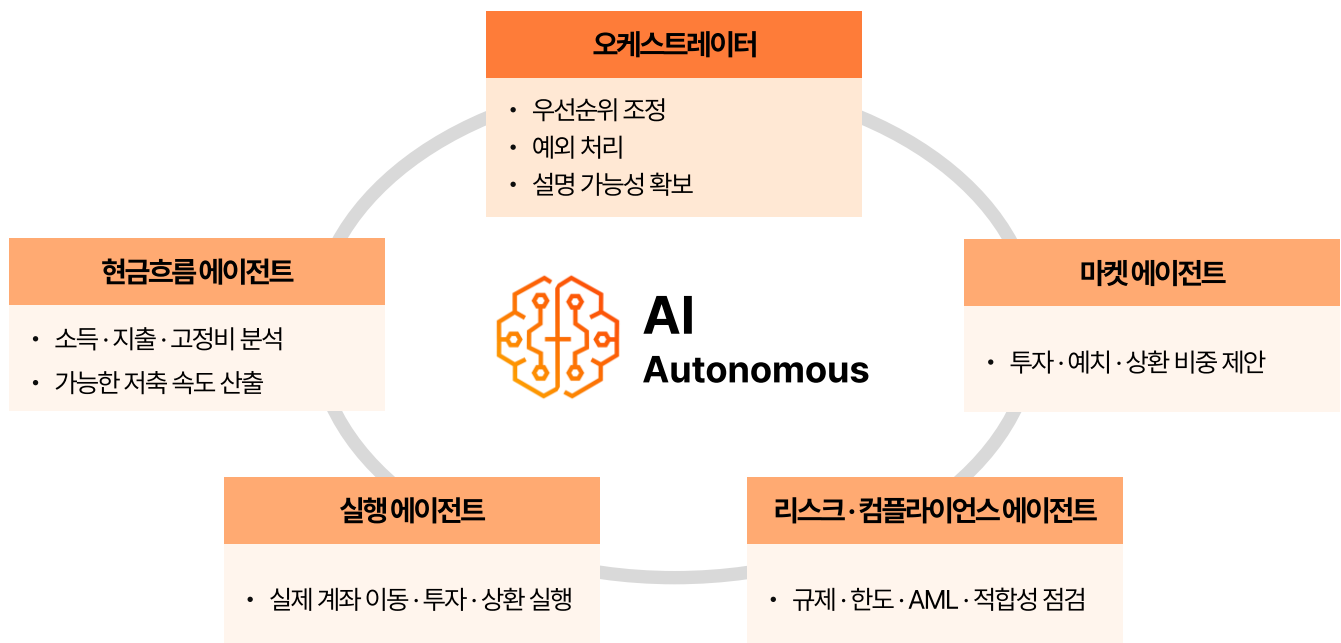
## 자동화가 아닌 목표 기반 실행의 시대

AI Autonomous를 자동화로 이해하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본질은 목표 기반 실행입니다. 고객이 "3년 안에 주택자금을 마련하고 싶다", "5년 안에 은퇴자금을 준비하고 싶다", "18개월 안에 부채를 줄이고 싶다"고 입력하면, 은행은 상품 목록을 나열하는 대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돈이 움직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의 만능 AI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구조가 아니라, 역할이 다른 여러 AI 에이전트가 연결되고 조화롭게 협업하는 구조입니다. 예컨대 고객이 3년 내 주택자금 마련을 목표로 제시하면, 분석 에이전트는 소득과 지출, 고정비를 분석해 가능한 저축 속도를 계산하고, 마켓 에이전트는 시장 환경을 반영해 투자와 예치, 상환의 비중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 에이전트는 규제와 한도, 자금세탁방지와 적합성 원칙을 점검하고, 실행 에이전트는 실제 계좌 이동이나 투자 실행, 상환 일정 조정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조율하는 오케스트레이터가 우선순위 충돌을 정리하고 예외 상황을 처리하며 설명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AI Autonomous의 본질은 자동으로 처리한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업무 흐름과 고객 목표가 끊임 없이 이어지는 운영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 AI Autonomous 작동원리



출처: PwC

이 방향은 이미 선도 은행들의 사례에서 확인됩니다. JP모건체이스는 2025년 기준 500개가 넘는 AI 유스케이스가 운영 중이라고 밝혔고, 2026년 생성형 AI 비중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운영되는 유스케이스 수가 전년 대비 두 배로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DBS도 AI를 PoC의 대상이 아니라 은행 운영의 기본값으로 실현해 왔습니다. DBS는 2023년 AI로 3억 7000만 싱가포르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냈고, 2025년에는 10억 싱가포르달러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PURE(Purposeful, Unsurprising, Respectful, Explainable) 원칙을 통해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 자율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자율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은행 경쟁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책임 있게 의사결정과 실행으로 이어지게 설계되었는가'가 경쟁력이 됩니다. AI Autonomous는 바로 그 설계를 기본 바탕으로 운영의 속도와 품질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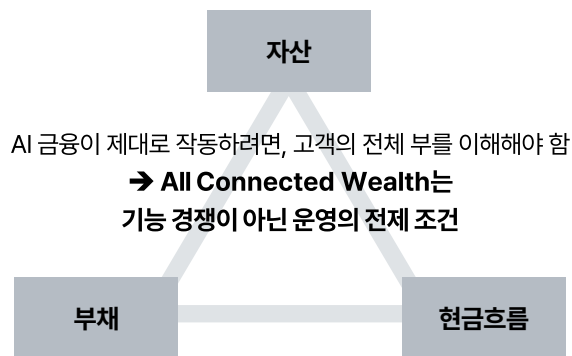
# AI 풀뱅크의 축③ All Connected Wealth

## 연결을 넘어 이동과 증식의 설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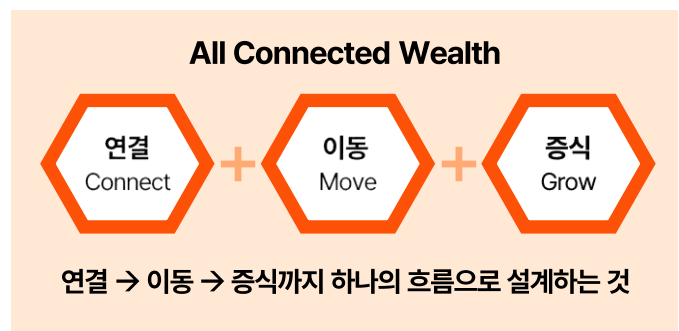
All Connected Wealth는 자산을 많이 연결하는 경쟁이 아닙니다. 오히려 AI Autonomous 금융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가깝습니다. 고객의 돈을 목표에 맞게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시가 고객의 전체 자산과 부채, 현금흐름을 한 화면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결이 허술하면 시는 한쪽 눈을 가린 채 운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연결이 조회를 넘어 이동과 증식으로 확장되는 순간,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커스터디(Custody)입니다. 커스터디는 자산을 보관하는 기능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산의 이동과 승인, 통제와 감사추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신뢰 인프라입니다. AI 풀뱅크의 완성은 결국 자산의 흐름에서 결정됩니다. All Connected Wealth는 그저 '자산을 모아 보여주는' 통합 조회가 아니라, 연결하고, 이동하고, 증식하는 흐름 전체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신뢰와 커스터디, 규제 준수와 규제 인텔리전스가 함께 결합되어야 합니다.

### All Connected Wealth의 연결 · 이동 · 증식 구조



단순히 자산을 모아 보여주는 통합 조회가 아니라,



출처: PwC

이 지점에서 글로벌 은행들의 최근 움직임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BNY멜론은 2022년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플랫폼을 가동하며 기술 파트너로 파이어블록스(Fireblocks)와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를 택했습니다.

파이어블록스는 보관과 이전, 키 관리 등 실행 인프라를, 체이널리시스는 컴플라이언스와 추적 분석을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All Connected Wealth는 화면에 자산을 모아 보여주기만하는 기능이 아니라, 보관·이전·감사·규제 대응까지 함께 붙어야만 가능한 은행의 신뢰 구조라는 뜻입니다.

스탠다드차타드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은행은 2025년 룩셈부르크에서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위한 라이선스를 확보하며, EU MiCA(Markets in Crypto-Assets, 가상자산 시장 규제법) 체제 아래 EU 시장으로 들어가는 규제 거점을 만들었습니다. 이어 2025년에는 21shares(스위스 기반의 세계적인 가상자산 ETP 발행사)의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은행으로 지정됐고, OKX(세계2위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협업을 EEA(European Economic Area, 유럽경제지역)로 확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스탠다드차타드는 전통 금융의 신뢰와 글로벌 규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의 보관과 기관 서비스까지 연결하는 은행형 커스터디의 전형을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앞으로 은행은 예금과 대출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전통 자산과 디지털 자산, 현금성 자산과 토큰화 자산을 안전하게 연결하고 이동시키는 '신뢰의 관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연결은 API의 문제가 아니라, 은행의 신뢰와 커스터디 인프라가 결합하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결국 All Connected Wealth는 은행이 고객의 국내외 자산, 실물자산, 디지털 자산, 결제와 송금의 흐름까지 하나의 신뢰 구조 위에서 이해하고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로 갈수록 승부는 기능의 수가 아니라, 커스터디와 규제 대응, 신뢰 인프라를 얼마나 정교하게 결합했는가에서 갈리게 됩니다.

## 규제·컴플라이언스 기반 자산 - 금융 신뢰 결합



출처: Media Research, PwC

# 제4인터넷전문은행의 새로운 기준

## 이제는 AI 풀뱅크를 기준으로

최근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가 조건 불충족으로 마무리된 것은 새로운 은행의 등장이 더 이상 아이디어나 선언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자금조달의 안정성, 대주주 적격성, 차별화된 혁신적 사업모델, 그리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을 포함한 생산적 포용적 금융의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핵심 심사 기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기에 AI 풀뱅크의 기준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이 디지털·모바일 중심 은행의 시대를 열었다면, 다음 단계는 슈퍼플랫폼 관점의 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4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연장선에서 또 하나의 디지털 은행을 더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People Light, AI Autonomous, All Connected Wealth를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갖춘 AI를 전제로 '생산적 금융을 가장 정교하게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은행업 모델인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기존 기준에 더해, AI를 활용해 핵심 인력을 기반으로 목적 중심의 금융을 정교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생산적 금융을 지속 가능하게 실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커스터디와 규제 대응까지 포함한 연결 구조를 완결성 있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판단 기준에 넣어야 합니다. 제4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반복이 아니라, 대한민국 금융산업이 AI 풀뱅크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위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2030년 우리는 AI 풀뱅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 Contacts

**문 홍 기 Partner**

hong-ki.moon@pwc.com

02-709-0394

**이 승 호 Partner**

seung-ho.lee@pwc.com

02-709-6449

**김 은 섭 Partner**

eun-seop.kim@pwc.com

02-3781-9749

**김 정 민 Partner**

jeongmin.kim@pwc.com

02-3781-1408



S/N: 2604C-RP-060

© 2026 PwC Consulting.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Korea group of member firms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http://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Disclaimer:** This content is for gener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